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12.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6 |
| IV. 국제신인도 | 8 |
| V. 종합의견 | 10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604천 km ² | GDP | 1,307억 달러 (2014년) |
| 인구 | 44.94백만 명 (2014년) | 1인당 GDP | 3,051달러 (2014년) |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통화단위 | Hryvnya(HRN) |
| 대외정책 | 친서방 정책 | 환율(달러당) | 11.89 (2014년 평균) |

-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국가임. 망간, 석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중공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우크라이나인(78%), 러시아인(17%)을 비롯하여 벨로루시인, 루마니아인 등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 공업지역(러시아인)과 서부 농업 지역(우크라이나인)의 민족, 문화적 차이가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5월 대선에서 EU에 우호적인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이 고전하는 등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부 지역의 무력분쟁 지속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임.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및 친EU 성향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된 반면, EU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f |
|------------|------|------|------|------|-------------------|
| 경제성장률 | 5.5 | 0.2 | 0.0 | -6.8 | -9.0 |
| 재정수지 / GDP | -2.8 | -4.3 | -4.8 | -4.5 | -4.2 |
| 소비자물가상승률 | 8.0 | 0.6 | -0.3 | 12.1 | 50.0 |

자료: IMF, EIU.

□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속 전망

- 우크라이나 경제는 2012년 유로컵 개최를 통한 투자 확대 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0.2% 성장에 그쳤으며, EU 및 러시아의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2013년에도 0%의 저성장을 지속함.
-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무력분쟁 및 정정불안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6.8%를 기록함. 2015년에는 장기간 지속된 무력분쟁, 공공부문 지출 및 내수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더욱 악화된 -9.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산업 및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내전으로 인해 산업생산이 둔화되었으며, 2015년 기준 국내총투자는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공공요금 인상 및 통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우크라이나는 2011년 가스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8.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13년에는 식품가격 하락 및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됨.
- 그러나 2014년 흐리브냐화 약세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1%로 상승했으며, 2015년에는 동부지역 무력분쟁에 따른 전기, 가스 및 수도의 공급 차질로 공공요금 인상이 지속되어 1996년 이후 최대치인 50.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4%대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12년에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이 증가한 반면 재정수입의 증가 둔화 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4.3%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국영 에너지기업에 대한 적자 보전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되어 GDP 대비 -4.8%를 기록함.
- 2014~15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정불안 심화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각각 GDP 대비 -4.5% 및 -4.2%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취약한 인프라 부문

- 우크라이나 경제는 철강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3.9%(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함.
- 2015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에 따르면 도로 인프라는 132위/140위, 항만 인프라는 108위/140위로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교통 인프라 시설이 매우 취약한 수준임.

□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 우크라이나는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연료 및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29.6%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최근과 같이 양국관계가 경색될 경우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됨.
- 2015년 11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및 거대 내수시장 보유

-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영토 면적기준 3위의 국가로 망간, 석탄,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요 증가시 경제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임.

- 2014년 기준 망간 매장량은 전 세계 2위, 석탄 매장량은 7위 수준임.

- 또한, CIS 국가 중 2위 규모인 4,280만 명('14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함.

□ 대 서방 에너지 수송로 역할

-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및 물류의 주요 수송로로써 매년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통행료(transit fee)를 확보하고 있음 (가스 1,000m³의 100km 통과 기준 통행료는 2.88달러).

- 우크라이나 국영 UkrTransGaz는 가스수송시스템(GTS)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 가스의 60%를 수송하고 있으며, GTS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임.

다. 정책성과

□ IMF 대기성 차관 지원으로 채무조정 및 경제개혁 노력 지속

- 우크라이나는 2014년 2월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며, IMF는 1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의 무력분쟁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상환 기일이 도래한 채무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자 IMF는 175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4년간 지원하기로 재합의함.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가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 축소, 석유 및 가스분야의 부분적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f |
|---------------|---------|---------|---------|---------|-------------------|
| 경 상 수 지 | -10,233 | -14,335 | -16,518 | -4,596 | -1,522 |
| 경 상 수 지 / GDP | -6.3 | -8.2 | -9.2 | -4.7 | -1.7 |
| 상 품 수 지 | -18,031 | -21,846 | -22,128 | -7,128 | -2,600 |
| 수 출 | 62,383 | 64,427 | 59,106 | 50,552 | 35,100 |
| 수 입 | 80,414 | 86,273 | 81,234 | 57,680 | 37,700 |
| 외 환 보 유 액 | 30,391 | 22,647 | 18,760 | 6,618 | 14,970 |
| 총 외 채 잔 액 | 126,236 | 136,448 | 147,712 | 138,640 | 142,842 |
| 총외채잔액/GDP | 83.0 | 77.3 | 80.6 | 95.4 | 133.5 |
| D S R | 30.1 | 28.8 | 38.1 | 34.5 | 26.4 |

자료: IMF, EIU.

□ 수입 급감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 추세

- 2013년 우크라이나의 경상수지 적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유로존의 경기 둔화,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9.2%까지 확대됨.
- 2014년에는 산업생산이 위축되어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가스 수출 중단, 국내수요 위축 등에 따라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4.7%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 급감

- 우크라이나의 2014년 외환보유액은 외채상환 및 환율방어 등의 영향으로 전년(187.6억 달러) 대비 64.7% 감소한 66.2억 달러로, 이는 월평균 수입액의 1개월 분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임.
- 2015년에는 외환보유액이 14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월평균 수입액 대비 2.6개월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외채상환지표 악화

- 2013년 말 심화된 동부 지역의 분쟁 지속으로 생산, 투자, 소비 등 대부분의 실물지표가 악화되고, 흐리브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가 심화되면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됨. 2015년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133.5%, 총수출 대비 18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상환지표가 악화된 상태임.
- 2015년 우크라이나의 총 외채는 1,428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단기외채는 321.8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355.2%에 달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높은 수준 유지

- 우크라이나의 D.S.R.은 30%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2015년에는 D.S.R.이 26.4%로 전년(34.5%) 대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친EU 성향의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지지율 하락 추세

- 2013년 11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의 압박과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영향을 받아 EU EP(Eastern Partnership) 가입 중단을 선언함. 이와 같은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대한 반발로 반정부시위가 지속되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4년 2월 말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했으며, 야체뉴크 조국당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는 등 과도정부를 구성함.
- 2015년 5월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전체 투표율 60.3% 중 55%의 득표율로 친EU 성향의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됨.
 - 지역별로 서부 지역은 전체 득표율의 55%, 동부는 40%를 득표하였으며 그 중 교전지역(루간스크, 하리코프, 도네츠크)에서는 34.8%를 득표함.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동부 지역에서의 투표율은 45%에 그쳤으며, 특히 교전지역에서는 34%만이 투표에 참여함.

- 그러나 포로셴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10월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세력이 고전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잠재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동부 지역의 무력분쟁으로 사회갈등 고조

- 언어, 종교, 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동서 지역간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 통합 및 정치·경제적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계 주민의 비중이 높은 우크라이나 동부 3개 지역(루간스크, 하리코프, 도네츠크)에서 분리를 주장하며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력 분쟁이 확대됨.
 - 2014년 5월에는 루간스크, 도네츠크 주에서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단행한 결과 루간스크 주의 96%, 도네츠크 주의 89%가 독립에 찬성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불법 선거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였고 서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만연

- 2014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국가 투명도는 142위/174위, 20점/100점에 불과하는 등 유럽 최저 수준이며, 특히 선진화된 법적 체제가 미비하여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태임.
- 세계은행은 IMF가 우크라이나에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패 척결이 에너지 부문 개혁 등 다른 조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3. 국제관계

□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등으로 인해 EU와의 협력 강화 계기 확보

- 우크라이나는 오렌지혁명 이후 친서방 성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및 동부지역 내전 등으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됨.
- 2014년 9월에는 유럽의회 및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축소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협정이 비준됨.

□ 친EU 정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 2014년 초,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 이후 친EU 정부가 수립되고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EU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와 더불어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 승인으로 인해 향후 러시아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 발생

- 2015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 승인잔액은 단기 461.8백만 달러, 중장기 2,617.6백만 달러이며, 이 중 단기 13.3백만 달러 및 중장기 159.6백만 달러가 연체 중임. 특히, 중장기 연체금액 중 108.4백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 35억 달러 규모의 대 러시아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 선언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채무조정 협상 노력에 실패하자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35억 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 밝혀 양국 간 채무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

2. 국제시장평가

□ 우크라이나 정부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합의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

- 2015년 3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로본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Moody's는 신용등급을 Caa3에서 Ca로 하향 조정함. 동년 9월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2015년 9.23~12.1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중앙정부의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S&P 및 Fitch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채권단 간 채무협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신용등급을 각각 SD(선택적 디폴트) 및 RD(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함.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채권단이 15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디폴트 가능성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확보되어 신용평가 3사는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함.

* 주요 평가기관의 우크라이나 국가신용등급 현황

- S&P: B("12.12)→B("13.10)→CCC+("14.1)→CCC("14.2)→CCC-("14.12)→CC("15.4)→SD("15.9)→B("15.10)
- Moody's: B3("12.12)→Caa1("13.9)→Caa2("14.1)→Caa3("14.4)→Ca("15.3)→Caa3("15.11)
- Fitch: B-("13.11)→CCC("14.2)→CC("15.2)→C("15.8)→RD("15.10)→CCC("15.11)
- OECD는 2015년 1월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 및 외채부문 악화 등을 이유로 7등급을 유지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2월 10일(북한과는 1992년 1월 9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02), 항공협정('03), 세관협력협정('04),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6), 원자력협력협정('07), 문화협정('09), 사증면제협정('14)

□ 201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수입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 19.1억 달러에서 2013년 10.8억 달러로 감소함. 2014년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46.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69.3% 증가하여 교역규모가 11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 급감은 우크라이나 경기침체로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 우크라이나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00위 수출대상국, 51위 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가 작은 편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식물성물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석유제품임.

□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실적 미미

-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누계액은 2015년 9월 말 기준 2.5억 달러(32건)로 미미한 수준임.

<표 3> 한·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 2013 | 2014 | 2015 | 주요품목 |
|----|-------|-------|------|-------------------------|
| 수출 | 635 | 339 | 174 |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
| 수입 | 448 | 759 | 628 | 식물성물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석유제품 |
| 합계 | 1,083 | 1,098 | 802 |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우크라이나는 2015년에는 장기간 지속된 동부 지역의 무력분쟁 및 투자, 소비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더욱 하락한 -9.0%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공공요금 인상 및 흐리브냐화 가치 급락에 따라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0.0%로 급등했으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2015년 149.7억 달러로 전년(66.2억 달러)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월평균 수입액의 2.6개월 분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또한, 2015년 11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15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에 대해 채권단과 채무재조정 합의를 완료하여 디폴트 가능성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133.5%로 여전히 외채상환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5월 대선에서 친EU 성향의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되어 EU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동부 지역 내전의 지속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태임.

조사역 조희연 (☎02-6255-5708)
E-mail: chy@koreaexim.go.kr